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3/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2	니까야강독2(초기불전006) 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 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9	치유하는 유식 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5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불교와 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 불교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책세상

'인문학'으로 읽는 니까야·반야심경·육조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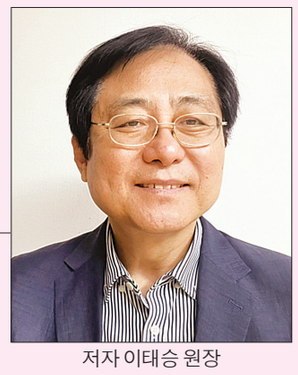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
최경아 지음
불광출판사 / 1만7천원

저자 최경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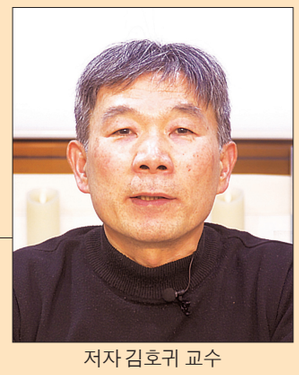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이태승 지음
불광출판사 / 1만7천원


저자 이태승 원장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
김호귀 지음
불광출판사 / 1만7천원


저자 김호귀 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경전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없이도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 차원의 고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신념 없이는 불교경전에 빠져들기 어렵다. 불교경전이 인문학적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인문학적 독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분량이 방대하고 경전마다 극복해야 할 문장이 많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앙적 차원의 동기부여가 동반된다면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독을 하기란 쉽지 않다. 완독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이 불광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이다. 지난 2023년에 1차분으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3권의 책이 출간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2차분으로 4, 5, 6권 〈니까야〉 〈반야심경〉 〈육조단경〉이 출간됐다. 이번 시리즈 역시 1차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으로 만들어졌다. 불교경전의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대중적인 문장으로 해당 경전을 소개한다. 단순히 경전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해당 경전이 어떤 경전이며, 왜 만들어졌으며,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 지 등을 조목조목 쉽게쉽게 짚어준다.

시리즈 4권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를 소개하는 책이다. 〈니까야〉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추구한 결과로 '나'라는 것은 없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니까야〉의 가르침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의식은 〈니까야〉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는 방대한 〈니까야〉 내용 중에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엄선해 설명한다. 독자는 책을 통해 불교 본연의 의문과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불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니까야〉는 많은 불교 경전 중에 합송(合誦)으로 전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을 고스란히 문자화시킨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역 경전 중에서는 〈아함경〉이 〈니까야〉에 해당하며, 내용상 많은 부분이 〈니까야〉와 비슷하다. 〈니까야〉는 하나의 경전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쿳다까니까야〉로 구성된 5부 〈니까야〉에 대한 통칭이다.

저자인 최경아 박사는 책에서 인도 유학 시절의 체험을 말하기도 하고, 본인의 독서 경험, 인도의 전래 우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친근한 문체로 이야기하듯 들려주면서도 〈니까야〉의 가르침을 제대로, 깊이 있게 전한다.

시리즈 5권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반야심경〉을 다뤘다. '반야경'은 하나의 경전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반야경'은 소품으로 분류되는 〈도행반야경〉 〈팔천송반야경〉 등과 대품으로 분류되는 〈방광반야경〉 〈대품반야경〉 등 여러 '반야경'들에 대한 통칭이며, 이 경전들은 기원전 100년경에서 기원 후 1200년경에 이르는 긴 시간에 걸쳐서 성립됐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반야경'의 핵심 사상을 요약한 경전으로,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2차분 〈니까야〉 〈반야심경〉 〈육조단경〉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으로 제작

불교경전 핵심 내용 쉬운 문장으로 설명

각 경전의 정의·목적·주요내용 등 쉽게

한역본으로는 소본 2종과 대본 5종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반야심경〉은 소본으로 분류되는 현장 역 〈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대승불교의 진수를 불과 260자의 한자로 압축해놓은 현장 역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한국 불자의 삶과 함께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반야심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짧고도 익숙한 경전이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일반인의 눈에는 〈반야심경〉의 간단해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가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그 암호들을 불교의 기본 개념들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더욱 넘기 힘든 난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반야사상의 권위자인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가 집필한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에서 언급되는 오온, 십이처, 십팔계, 십이연기, 사제와 같은 불교의 기본 개념들을 간명하게 짚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게는 낯선 지혜륜 역 대본 〈반야심경〉과의 교차 검토까지 하며 공에 대해 살펴본다. 불교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불교를 배태한 인도철학의 맥락에서도 공을 다루는 접근법 역시 이 책의 장점이다. 이를 통해 책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을 명징하게 설명한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길이며, 공은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한다. 책은 공성(空性)의 체득, 즉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설명을 디딤돌 삼아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신기루 같이 사라지는 대자유의 경지에 대해 말한다. 이런 경지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를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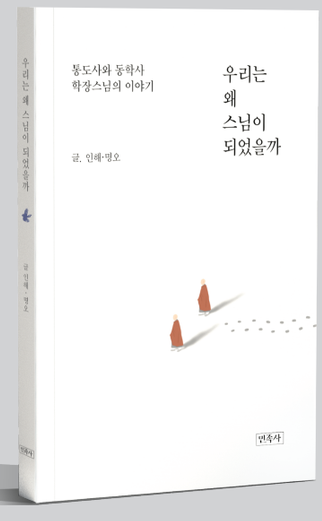
시리즈 6권은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승인 혜능(638~713)의 어록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經)'이라는 명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헌에서만 붙일 수 있는 것이지만, 〈육조단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선종, 그리고 한국 선종에서 〈육조단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만큼 중요한 문헌임을 보여준다. 책은 〈육조단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쉬운 언어로 풀어준다.

〈육조단경〉은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육조단경〉은 대개의 불교 경전이나 논서와는 달리 사변적인 가르침보다는 혜능의 생애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일화들에 담긴 의미를 일반인이 속속들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은 〈육조단경〉이 그려내는 일상 속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왜 혜능이 일자무식의 이미지로 그려졌는지, 왜 혜능을 둘러싸고 중국 선종사의 법맥 논쟁이 일어났는지 등 여러 의문들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은 이를 통해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혜능이 말하고자 했던 참뜻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한 경전 이외에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불교 문헌 가운데 하나가 〈육조단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조단경〉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며 전승되었지만 널리 그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자 문화권을 넘어 다른 문화권까지 소개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